오늘(홀수날) 공공기관 홀수차만 출근

민원인 차량은 종전처럼 5부제로
업무용 포함…경차·장애인차 제외

15일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2부제)가 시행된다. 광주지역 각 기관들은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둔 14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제도 홍보와 스티커 배부 등 시행 준비에 분주했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이날 수차례 구내방송과 내부 게시판을 통해 '짝수 날은 짝수 번호 차, 홀수 날은 홀수 번호 차만 이용할 수 있다'고 집중 홍보했다.

광주시는 또 종전처럼 5부제가 적용되는 민원인 차량과의 구별을 위한 스티커를 공무원들에게 배부해 차량에 부착하도록 했다.

시 산하기관과 자치구, 시 교육청도 직원들에게 스티커를 나눠주고 출입구에 홀짝제 안내판을 설치했다.

이들 기관은 감사 부서 직원들을 동원, 매일 정기점검을 통해 위반 직원들을 공개하는 등 벌칙도 마련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는 지난 7일 국세청에 이어 두 번째로 14일부터 승용차 '홀짝제'를 본격 시행했다.

각 경찰청과 경찰서는 이날 오전 7~9시 출근시간에 경무과 직원 2~3명을 정문 입구에 배치해 차량을 통제했으며, 첫날부터 홀짝제가 엄격히 적용될 것을 예상치 못한 '홀수 번호 차량' 은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차량을 돌리기도 했다.

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내의 경차를 몰고 오거나 경찰서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해 놓고 출근하는 '얌체 경찰관'들도 눈에 띄었다. 이로 인해 각 경찰청과 경찰서 주차장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각각 홀·짝수 번호인 2대의 관용차량이 있는 박영헌 전남경찰청장은 '하루씩 번갈아 가며 차량을 이용하라'는 부하 직원들의 권유에도 '1호차'를 운행할 수 없는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다.

조선대는 15일부터 영업용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에 5부제를 적용하는 대신 대중교통 수단 이용자를 위해 출근시간대인 8시 20분부터 10분 간격으로 교내 순환버스를 운행키로 했다.

전남대는 기존의 차량 5부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각급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포함한 관용차량 전체와 소속 직원들의 보유차량을 대상으로 홀짝제 운행제가 적용된다"고 14일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4일 조선대 모의법정에서 열린 정상화 추진과정 보고대회에 참석한 조선대 교무위원 및 교직원들이 사학분쟁조정위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사 없는 조선대, 교수 채용 등 현안 산적

정상화 지연땐 2학기 강의 차질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지난달 말로 일제히 만료됐으나 사학분쟁조정위에 의해 새 이사 선임이 미뤄지면서 '이사 부존재' 상태에 놓인 조선대 법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사회가 마비된 지 2주일을 지나고 있지만, 사학분쟁조정위의 조선대 정상화 의지는 약해 보이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현안들은 산적한 상황이다.

14일 조선대 법인에 따르면 조선대는 생명공학과, 경찰행정학과, 신문방송학과 등 38개 학과에서 38명 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8월 내에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2학기부터 새로 채용되는 교수들이 강의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조선대 법인 산하 중·고교의 경우 1학기를 끝으로 정년·명예퇴직하는 교원 4~5명를 대체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데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조대부고 교장의 임기도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라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대행체제로 가야한다.

또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시로 채용해야 하는 병원 간호사 채용도 문제다. 당장 MRI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 역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인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언급했던 긴급처리권은 이전 임시이사들이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다.

조선대 법인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금처럼 환율 변동이 심한 데도 기금운용위원회를 가동할 수 없어 보는 손해, 간호사 수 미비로 병원 평가에서 등급 하락이 될 우려 등도 무시할 수 없다"며 "8월 초를 한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 전호종 총장과 각 처장 등 교무위원은 14일 교내 모의법정에서 정상화 추진과정 보고대회를 갖고 "사학분쟁조정위는 비리집단이 학원운영에 관여하려는 의도를 철저히 차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정상필기자 camus@

인사 면접 담당 63%
"촛불시위 물어 봤다"

기업 인사담당자 상당수가 채용 면접에서 구직자들에게 촛불시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14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 392명을 대상으로 '최근 면접에서 촛불시위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은 결과 63.0%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에 대해(복수응답) 인사담당자들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구직자들의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59.9%) 또는 '찬반에 대한 논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47.8%)라고 밝혔다.

촛불시위에 대한 지원자의 찬반 여부가 면접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개 '동점자에 한해 당락 여부를 결정지을 정도'(34.8%)나 '그냥 참고만 하는 정도'(33.2%)라고 말했지만 '당락이 좌우될 만큼 매우 큰 영향이 있다'고 답한 인사 담당자도 25.1%에 달했다. /연합뉴스

비위 면직된 前 검사
변호사 등록 첫 거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특정 종교단체와 관련된 비위 행위로 면직된 이모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변협이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검사는 특정 종교단체에 반대하는 활동가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처분을 받았으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변협에 등록해야 하는데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파면 및 해임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소추를 받은 이들 중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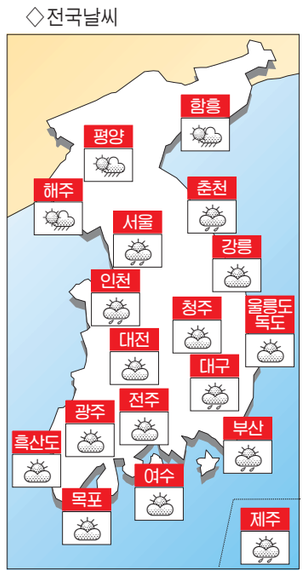
뜨거운 태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구름이 많이 끼겠다.

7월 15일 (음 6월 13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구름 많음	25~32℃
목 포	구름 많음	25~31℃
여 수	구름 많음	24~30℃
완 도	구름 많음	25~31℃
구 례	구름 많음	24~33℃
해 남	구름 많음	24~31℃
장 흥	구름 많음	25~31℃
고 흥	구름 많음	24~32℃
순 천	구름 많음	24~33℃
영 광	구름 많음	25~32℃
진 도	구름 많음	25~33℃
전 주	구름 많음	24~32℃
남 원	구름 많음	23~32℃
흑산도	구름 많음	22~27℃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0.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목 포 밀물〈 00:16 11:48 썰물〈 06:03 17:32
여 수 밀물〈 06:51 20:00 썰물〈 01:30 12:58

▲해뜸 05:29 ▲해짐 19:47 ▲달뜸 17:41 ▲달짐 02:1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날 씨						
최저/최고	24/30	24/31	24/32	24/30	25/29	24/30

전남 일부 또 폭염주의보

내일 비…더위 한풀 꺾여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4일 오후 5시를 기해 곡성, 구례, 화순, 광양, 순천, 진도 등 전남지역 6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광양 33.9도, 순천 33.2도, 구례 33.2도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또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은 이틀째 열대야 현상이 이어져 시민들이 밤잠을 설쳤다. 광주는 지난 13일 아침 최저기온이 25도, 14일 25.8도를 기록했으며, 진도, 함평, 강진 등 대부분의 전남지역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현상을 보였다.

이번 더위는 오는 16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인해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며, 휴일인 20일 다시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강필상기자 kps@

학교 17% 급식소 면적 기준 밑돌아

윤봉근 광주교육위원 지적

광주지역 일부 초·중·고교의 급식소와 강당 면적이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윤봉근 위원이 14일 제168회 교육위 임시회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내 초·중·고교 급식소의 경우 학생 1인당 최소 확보면적인 0.7㎡ 이하인 곳이 초등학교 15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49곳이었다. 전체 학교 282곳의 17.4%에 해당한다. 대광여고, 서진여고, 송원여자정보고 등 고교 12곳은 1인당 면적이 0.5㎡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목적 강당은 시교육청이 기준으로 정한 면적 650㎡(배구장 크기)에 미달한 곳이 전체의 30.9%인 87곳(초교 61곳·중학교 23곳·고교 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당이 아예 없는 곳도 용봉초교, 신암초교 등 초교 10곳, 무등중, 지원중 등 중학교 5곳, 과학고, 예술고, 동신고 등 고교 9곳 등 24곳이나 됐다. 다목적 강당 면적이 400㎡가 안 되는 곳은 마재초, 금구초, 대반초 등 10곳이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